

습니다. 특정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해 나가다 보면, 진정성이 생기고 전문성 또한 늘겠지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 위원회는 각종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방법인 ADR(대체적분쟁해결제)을 사회 각 분야에 소개하기 위해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지향적인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슬로건은 'together we can'입니다. 슬로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갈등 지향적 사회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함께 가는 사회로 변모하여야 한국이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지요. 재판으로는 이기고 지고의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사회에 법률로만 재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

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에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언론중재위원회'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 ● 판사, 국회의원에 이어 사회단체 대표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인으로 활동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는지요.

지금은 스페셜올림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했기에 올해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라는 보람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도 퇴임 후에 어떤 순간이 보람되었는지 여쭙보면, 재임 당시의 최고의 순간이나 업적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마음 따뜻한 일을 한 것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겐 그 결과물이 스페셜올림픽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 (홍보팀 차장보)

위원회 창립 32주년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2주년

“ 축하 인사 ”



나경원 위원장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회의 창립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3년의 화두는 힐링과 소통입니다. 언론보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언론과 국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국민의 마음을 힐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철 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중재위원으로서 사회에서 침묵하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을 다뤄볼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유능하고 센스 만점인 조사관님들을 알게 된 것은 커다란 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중재위원회이기를 기원합니다.

위원회 창립 32주년 기념식이 3월 29일 오후 위원회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권성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무처 직원들에게 “최근 강의실 신설 및 전문 프로그램 마련 등 제반 환경을 구축한 만큼 위원회가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선도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여 다른 나라에 우리 제도를 널리 알리고 관련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유공직원에 대한 위원장 표창 및 장기근속상이 수여됐다.

- 유공직원 : 김문중(연속교육팀), 박은영(조사팀),
김이영(경남사무소), 이지은(총무팀)
- 20년 근속직원 : 류석창 전문위원(국방대학교 파견),
여종국 팀장(기사심의팀),
이진희(대전사무소)
- 10년 근속직원 : 최서윤(총무팀)



정상조 학장
서울대 법대

창립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2년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제도의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동시에 책임감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광표 팀장
동아일보/채널A
기획홍보팀

언론을 공기라고 한다면, 언론중재위는 공기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하는 존재이겠지요. 수년 전, 언론중재위 조정심리에 종종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중재위 32년, 그 원숙한 모습이 더욱 듬직합니다.



김세영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을 대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창립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합리적인 보도가 요구됩니다. 갈수록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만큼,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